

전당대회로 당내부 활력 찾고 개혁입법연대로 존재감 모색

지방선거 후 2주일...평화당은 지금

정동영·유성엽·최경환·이용주
당권 도전 적극 검토 흥행 기대

6·13 지방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둔 민주당도 전당대회와 개혁입법연대 카드 등을 통해 정치적 존재감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 활로를 모색하고 나섰다.

우선 평화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내부 활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전부의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 광주의 최경환 의원, 전남의 이용주 의원 등이 당권 도전을 적극 검토하면서 내심 흥행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현재 정동영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전대 출마를 결정한 가운데 유성엽, 이용주 의원은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의원과 이 의원이 출마를 결정할 경우, 종전과 초선 그리고 광주·전남과 전북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지역 민심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 국회에서의 캐스팅 보트를 적극 행사하며 시대적 가치를 선점해 나간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근거로 활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은 '개혁 입법 연대' 카드로 정치적 존재감 확보에 나서고 있다. 130석인 더불어민주당에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바른미래당 내 이탈파 (3석), 친여 성향 무소속 (3석), 민중당 (1석)이 연대한다면 모두 157석으로 전체 의석의 과반을 확보, 개혁 입법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정치 9단 박지현 의원이 판을 깔고 있고 천정

배 의원과 장병완 원내대표가 힘을 실고 있다.

민주당도 연정이 아닌 연대라는 점에서 부담이 없다. 특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과반 이상의 의석 확보는 여권으로서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다. 평화당은 이를 통해 원 구성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다당제 국회에서의 존재감을 살려간다는 것이다. 평화당은 개혁입법연대가 호남 민심의 눈 높이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부에서는 개혁입법연대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의 통합이나 연합공천의 계기가 되지 않느냐는 기대적인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평화당은 보수 진영의 재편 과정도 주목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이 자유한국당과의 보수 재편에 나선다면 바른미래당의 분당이나 호남 의원들의 탈당이 불가피, 평화당으로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른미래당의 당권 경쟁 구도는 손학규 전 대표와 하태경·김성식 의원, 이준석 전 위원장 등 보수 재편에 긍정적인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중진들은 최근 회동을 갖고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의 오해와 서운함을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호남이 중심이 된 '제3당 재건론'도 나오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호남 의원들은 차기 총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병상련의 처지"라면서 "이는 명분과 계기가 주어진다면 함께 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하지만, 차기 대권 주자가 없고 부정적인 국민의당 학습 효과에 호남 중진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호남 정치권의 결집을 통한 제3당 재건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6·13 재선거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인 인터뷰

“광주형 일자리·군공항 이전 힘 보태겠다”

“당적 따지지 않고 지역발전 논의하겠다”

■ 광주 서구갑 송갑석



지난 6·13 서구 갑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진출한 송갑석 의원(52)의 어깨에 지워진 책무는 무겁다. 광주 유일 여당 의원이라는 점에서 광폭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학교 사무실에서 송 의원을 만나 비전을 들어봤다.

-호남의 현실을 어떻게 보나.

▲호남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이어 3기 민주정권인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지역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호남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기업이 울 수 있도록,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호남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호남 인사 중용이라는 '인사 폭탄'을 통해 호남의 갈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호남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다 정밀한 '예산·정책폭탄'을 집중 투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

-호남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을 거치면서 호남 정치권에는 많은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호남 정치권은 지역적 한계를 넘지 못했다.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대적 가치를 선점하지 못했다. 분열하고 갈등했다.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호남 정치권은 새로운 시점에 섰다. 시대와 소통하며 새로운 장정에 나서야 한다. 과감한 도전과 응전을 통해 정권 창출의 주역이 아닌, 핵심에 호남 정치권이 서도록 하겠다.

-임기동안 해결할 현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 사업을 광주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내겠다. 지지부진한 군 공항 이전도 구체화 시키겠다. 세계수업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도 현안이다. 특히, 북한의 참여를 유도, 광주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역할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 영암·무안·신안 서삼석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서삼석 의원(59)은 소탈하면서도 진지한 자세로 인터뷰에 임했다. 다음은 광주 무각사 근처 커피숍에서 이뤄진 서 의원과 인터뷰 내용이다.

-뒤늦게 20대 국회에 들어갔는데 각오는

▲늦었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급하다. 늦었으니 두 세배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입법 활동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인지.

▲농수축산업이 경제논리로 인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점검하겠다. 또 농어촌과 섬 사람들의 삶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는 입법활동을 하고 싶다.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는.

▲태어난 지역을 비롯해 많은 조건들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족쇄가 돼 행복 권리를 갖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라 생각한다.

-전남도에서 정치적 비중이 커졌다.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현역의원으로서 그리고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정치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역정치권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보여줬다. 중앙에서 활동하다가 선거 때만 내려와서 자리를 차지하는 정치는 이제 어렵다는 것을 보여줬다. 또 세대 및 인물교체가 활발히 되고 있음을 당원들이 증명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이어 호남에 새로운 인물을 키우고 지역에 새로운 정치적 자양분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

-여당 의원으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발전 공약을 지켜가도록 노력하겠다. 지역발전 문제는 당적을 떠나 다른 의원들과도 협조하고 소통할 생각이다. 광역·기초단체장·지방의원 뿐 아니라 농수축산 조합들과도 언제든지 상의하고 소통하겠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평화당 조배숙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주에서 소주맛을 잡았다

광주·전남 시도민 1만 5천명과 보해양조가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作家 유시민

1000 보해

1000년애

축구가 뭐길래 세계인은 울고 열광하는가

김은영의 '그림 생각'

(229) 러시아 월드컵

말론만 들어도 설레는 그 도시, 러시아의 문호 막심 고리키의 고향인 니즈니 노브고로드에서 러시아 월드컵 한국 첫 경기가 열렸다. 흔히 팔려 경기에 몰입한 건 아니지만 아쉽고 답답한 경기였다.

솔로호프의 '고요한 둔강'에 위치한 로스토프 나도누에서는 멕시코와 2차전을 치렀다. 문전에서 벗어난 슈팅과 선수의 무리한 태클을 볼 때는 흔히 말하듯 '밥 먹고 축구만 했을 선수들이 왜 저러나...'하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지만 경기 후 사나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니 찜하고 마음 아팠다. 도대체 축구가 뭐길래!

저명한 고고학자인 미국의 존 폭스는 공을 쫓아 달리는 단순한 놀이가 오늘날 수천억 달러의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배경을 찾아 공놀이에 관한 인류의 기원을 추적하고 집필한 저서 '우리는 왜 공놀이에 열광하는가'에서 묻고 답한다. 도대체 축구가 뭐길래 굴리고 차고 목이 터져라 환호하는가? '한 마디로, 재미있으니까'

가브리엘 오로스코 작 '긴 공'

란다. 재미도 재미지만 월드컵 축구가 있던 그날 밤 온 국민이 하나 된 열광은 "우리 팀 공이 더 길었으면..."하는 간절함 아니었을까?

멕시코 출신의 현대미술작가 가브리엘 오로스코(1962년~)의 작품 '긴 공' (1993년 작)을 보면 작가가 그런 마음이었으리라. 축구가 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니면 '숏! 골 인!'되는 순간의 모습을 공의 반복된 이미지를 통해 길게 길게 늘어나 보이게 했는지도 모른다.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때만 반짝 축구공을 중심으로 모여드는 우리와 달리 일상은 물론 예술에서도 축구가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나라가 멕시코임을 알게 해주는 작품인 것도 같다.

소재나 장르에 제한받지 않고 다양한 작품을 연출하기로 이튿날 오로스코는 전 세계를 유랑하듯 돌아다니며 작업하는 작가답게 각 지역에서 만나는 오브제를 소재로 사물의 움직임, 확장, 반복, 순환을 고민하는 작품을 새로운 발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정책기획실장·미술사박사>